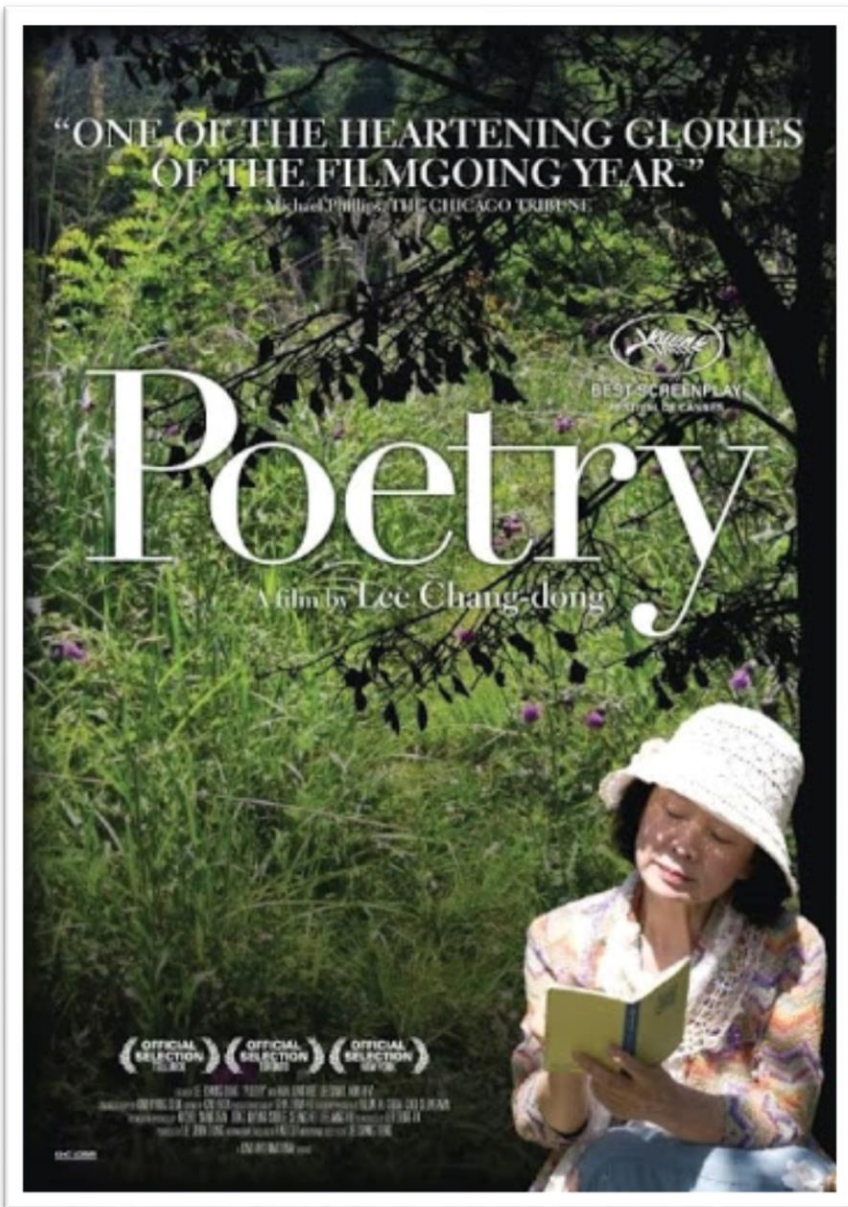


아네스의 노래







'시'를 쓴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은
동지선달 이른 새벽
관절이 부어 오른 손으로
하얀 쌀 씻어 내리시던
엄마 기억하는 일이다
소한의 얼음 두께 녹이며
군불 지피시던
아버지 손등의 굵은 힘줄 기억해내는 일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깊은 밤 잠 깨어 홀로임에 울어보는
무너져 가는 마음의 기둥
꽃꽂이 세우려

참하고 단단한 주춧돌 하나 만드는 일이다

허허한 창 모서리
혼신의 힘으로 버틴
밤새워 흔들리는 그것, 잠재우는 일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퍼내고 퍼내어도
자꾸만 차오르는 이끼 낀 물
아낌없이 비워내는 일이다
무성한 나뭇가지를 지나
그 것, 그 찢고만한
물푸레 나뭇잎 만지는
여백의 숲 하나 만드는 일이다

조영혜, <시를 쓴다는 것>







고통을 마주보는 일









그리운 부석사

정호승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비로자나불이 손가락에 매달려 앉아 있겠느냐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아미타불이 모가지를 베어서 베개로 삼겠느냐

새벽이 지나도록

마지(摩旨)를 올리는 쇠종 소리는 울리지 않는데

나는 부석사 당간지주 앞에 평생을 앉아

그대에게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 절 하나 지었다 부수네

하늘 나는 돌 위에 절 하나 짓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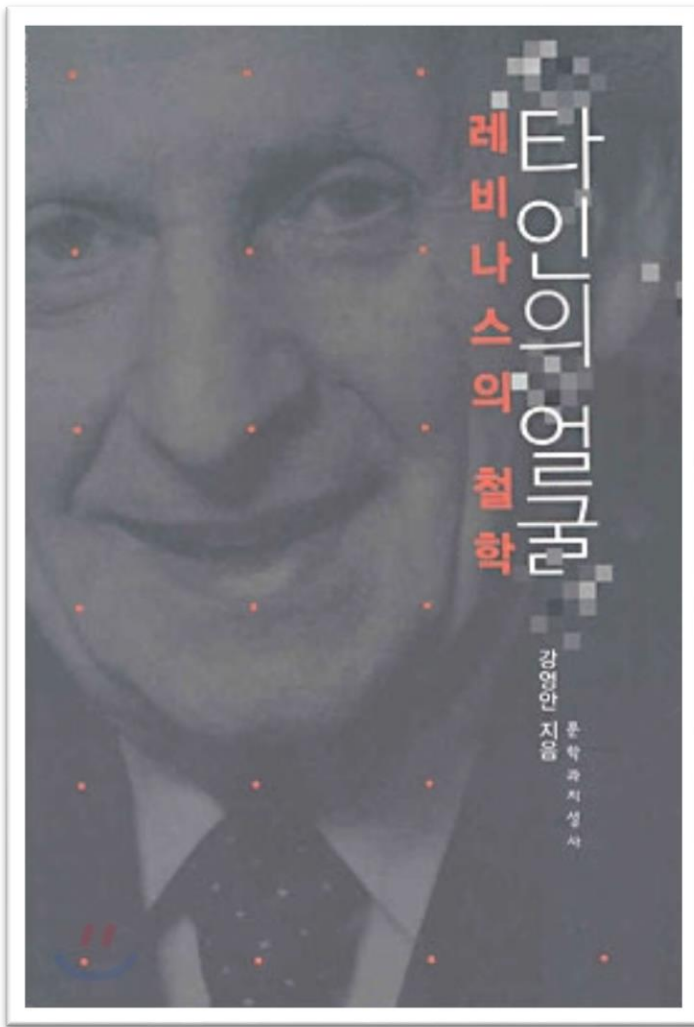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자를 수용하는 일은 주체와 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적 사건을 통해 가능하다. 윤리적 사건이란 타인의 얼굴의 출현을 말한다. 주체에게로 환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의 출현은 자연과 물질을 향유하며 자신의 안정된 거주 공간 속에서 일정한 노동을 통해 일상을 영위하던 개인 주체에게 충격 자체이다. 이것을 다시 동일자의 내부로 끌어들이 수 없는 이유는 타인이 역사적, 심리학적, 문화적 의미 부여의 맥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얼굴로 다가오는 타인은 유일하고 독특한 표정으로 주체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 온다. 이렇듯 개별적인 얼굴에 담긴 구체적 표정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주체가 윤리학적 지평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타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이들





아네스의 노래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나요
차마 부치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의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 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존 던(John Danne)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岬)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며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領地)가 그리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For Whom The Bell Tolls

(No man is an island)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in.

If a clod be washed away by the sea,
Europe is the less, as well as if a promontory
were,

as well as if a manor of thy friend's or of
thine own were: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참고문헌

이창동, <시>, 2010.

신형철, 《느낌의 공동체》, 문학동네, 2011.

이동진,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위즈덤하우스, 2019.

정한석, 《성질과 상태》, 강, 2017.

이명희, <시 창작 원리로서의 윤리의식>, 《통일인문학》 5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황혜진,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윤리학>, 《씨네포럼》 15,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2.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레트로토피아》, 아르테, 2018.